

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No. 1

대학	카자흐 국립대	학과	한국학과	학년	3학년	이름	한 율리아
----	---------	----	------	----	-----	----	-------

2등

100

200

300

400

500

친구

"인생에 소중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 세상은 우리 돈과 만이 사는 세상이다. 아니다. 우리 곁에 항상 친구가 있다. 지지할 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어도 언젠가 들며 주고 고고 통을 나누고 도와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 없다. 사랑, 위로, 용서, 행복, 등 같은 좋은 감정들은 친구들과 관련한다.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삶은 고난, 고생과 눈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친구는 마음에 상처가 나면 마음을 편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친구라는 사람은 나와 슬픔을 나눌 만큼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아스트가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친구는 태양처럼 따뜻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차가운 배처럼 마음을 섭섭하게 될 수 있다. 어떤 때든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 친구의 생각과 의견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은 친구의 사랑과 주의에 달려 있다 고 본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재앙, 전쟁, 사고, 문제 등 속상하게 하는 것 당하

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No. 2

대학	카즈누대	학과	한국학과	학년	3학년	이름	한 율리아
----	------	----	------	----	-----	----	-------

100

200

300

400

500

하 고 친 구 와 관 련 한 것 만 우 리 를 기 버
 하 게 된 다 .
 우 리 를 돌 러 싸 있 는 것 들 이 나 사 람 들
 중 에 어 려운 것 이 나 누 구 를 권 구 로 삼 을
 것 인 지 는 우 리 에 게 알 려 있 다 . 나 는 러
 음 에 주 세 를 받 았 을 때 제 일 즐 아 하 고
 나 에 게 지 혜 로 운 중 고 를 주 는 책 에 대
 해 서 쓰 려 고 했 다 . 그 러 나 한 콧 생 각 하
 다 가 고 마 운 권 구 에 대 해 서 쓰 고 싶 어
 했 다 . 내 가 살 아 왔 던 날 들 중 에 그 권
 구 와 같 이 보 냈 던 날 들 이 가 랑 기 뻘 다 .
 얼마 전 에 언 니 의 동 광 생 에 게 서 전 화
 를 받 았 다 . 그 는 아 주 똑 똑 하 고 건 문 이
 녀 은 걸 알 게 되 었 다 . 우 리 는 3 년 동
 안 이 나 전 화 로 만 알 고 지 냈 다 . 좀 이 상
 하 게 보 이 리 만 우 리 는 서 로 친 해 러 서
 서 로 의 마 음 을 파 악 할 수 있 었 다 . 내 가
 무 슌 일 이 있 어 도 권 구 가 항 상 도 와
 주 고 중 고 를 쳤 다 . 그 권 구 는 나 를 몇
 번 이 나 만 나 달 라 고 했 러 만 내 가 실 망
 할 까 봐 거 절 했 다 . 이 기 우 때 문 에
 큰 실 수 를 했 다 . 어 느 날 그 는 더 이
 상 콧 을 수 얹 고 , 내 일 만 나 리 앓 으 면
 나 를 잊 어 버 리 라 고 했 다 . 그 때 내 가
 나 과 케 병 오 디 러 화 를 냈 고 , 콧 을 수

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No. 3

대학	카즈누대	학과	한국학과	학년	3학년	이름	한 율리야
----	------	----	------	----	-----	----	-------

한은면 연락하기 말라고 대답했다. 우리
 는마리막으로 이야기한지 벌써 3년이
 되었다. 나는너무늦게실수를깨달았
 다. 그와연락이끊긴후에만그는나
 한테얼마나필요하고나는얼마나아
 끼는사람인지파악했다. 각년에내가
 친구는사교를당해서죽었다고알게
 되었다. 가끔사람을실수를하고앞으
 로사과해야할사람은과거과신분
 이라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 그실수
 때문에나뿐만아니라친구도고생을
 받았다. 나는친구를보호할수없었다.
 제시간에사과하지않고고맷지않았다.
 지금은나의친구가하늘나라에살고
 있고나에대해서좋은것만기억한다
 고기대한다. 그리고내가눈물이들릴
 정도로힘들고죽고싶을정도로외로
 운때친구익귀신에게이야기한다. 가
 꿈꿈에서만나고그동안가리고있는
 고마운말을하고응수해달라고한다.
 친구덕분에다시한번이라도좋은
 기회를놓칠지않을것이다.
 어제"일단한번만"이라는미국영
 화를봤다. 한번만죽음을이길수
 있고실수를고칠수있고사랑하는

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No. 4

대학	카즈누대	학과	3학년	학년	한국학과	이름	한 율리아
----	------	----	-----	----	------	----	-------

100

200

300

400

500

사람에게 사랑을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영원히 바뀔 수 있을 것이
 다. 지금 바로 나의 글짓기를 읽으시는
 사람에게 과선익 삶에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 꼭결에 읽는
 친구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고 제일 소
 중한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은 우
 리의 보물이다. 나는 이 글짓기를 친구
 에게 용서해 달라는 뜻으로 썼다. 순간
 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게 하는 경
 우가 많다.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